

1/24(월) 출애굽기 25-28장 성막의 은혜

이스라엘이 출애굽 해야 했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?

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<종>이 되어야 합니다.

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<예배>하는 백성,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.

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.

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며 <율법>과 <성막> 도안을 주십니다.

<율법>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백성의 삶이 담겼습니다.

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며 순종할 때 어떤 삶을 영위하게 하실지,

하나님 백성의 삶,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(20-23장).

<성막>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.

하나님 은혜로 자격미달인 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여전히 배신할 것입니다.

그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(창10:16, 출25:10-16),

죄 지은 자까지도 돌이키면 받아주실 것입니다(25:17-22),

빛을 비추어 주시며 살리시고 살피실 것입니다(25:23-40),

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(출25:8, 40:34-38, 레9:22-24).

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표였습니다(민9:15-23).

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으며(회막 會幕, 레16:2, 왕상8:30),

하나님의 뜻이 땅에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.

성막은 어디서든지 가장 <중심>에 자리 잡았습니다(민2장).

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,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됩니다.

성막은 죄 지었을 때조차 돌아가야 할 거룩한 공간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.

이렇듯 중요한 성막이기에 하나님은 매우 세세한 지침들을 내리십니다(25-31:18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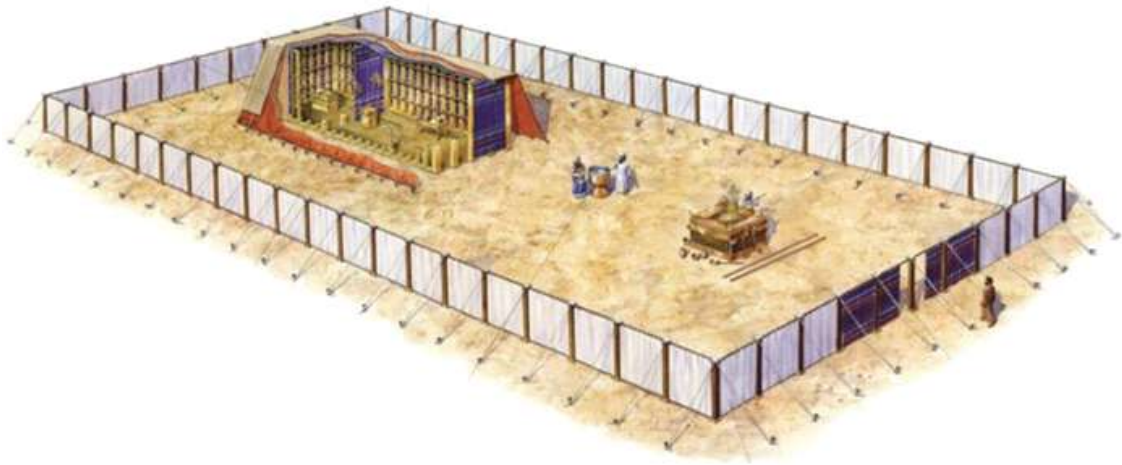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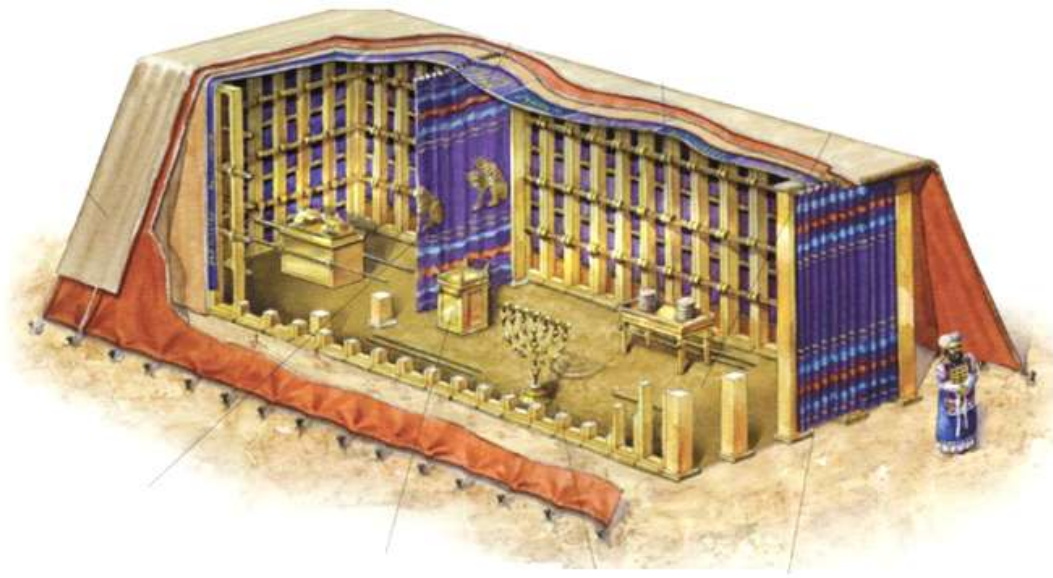
성막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(35:1-40:38).

내 삶은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?

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십니까?

❷ 나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출애굽기 25-28장 (17:51)



번제단(출처 ESV studybible)



금촛대



진설병 상



지성소 안 언약궤



분향단



